

	<b>베트남(하노이) 해외사무소 해외동향보고서</b>	작성팀	마케팅지원팀
		담당자	정 걸 기 소 장
		일 시	2025. 4.

## CEPA Insight

- SC은행 “베트남, 고환율 연말까지 지속 전망”
- 롯데글로벌로지스, 동나이성 콜드체인물류센터 착공
- 베트남...작년 음료시장 118조동(46.2억달러) 13%↑
- GS25, 하노이 매장 6곳 개설...7년만에 북부로 확장

### ■ SC은행 “베트남, 고환율 연말까지 지속 전망”

- 영국계 대형은행 스탠다드차타드은행(SC은행)이 올해 베트남의 달러/동 (USD/VND) 환율이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 SC은행은 최근 내놓은 베트남 거시경제 보고서를 통해 연중 달러/동 환율에 대한 전망치를 종전 2만5,450동에서 2만6,000동으로, 연말 환율을 2만5,000에서 2만5,700으로 각각 상향(달러강세) 조정했다.
- 보고서는 환율 전망치 조정이 세계 및 지역 경제 상황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이에 대해 팀 리라하판(Tim Leelahaphan) SC은행 태국·베트남 담당 이코노미스트는 “베트남 동화는 지난 3년간 달러강세 영향으로 아시아 신흥시장 통화와 유사한 추세를 유지해왔다”며 “시장변동성은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무역 동향과 세계경제 상황 등 외부 요인은 환율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라고 밝혔다.
- 그는 이어 “베트남의 단기 경제전망은 신중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며 “미국을 상대로 막대한 무역 흑자를 올리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미

국의 관세정책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가 나와야 하며, 베트남이 다른 상품들 가운데 미국에서 더 많은 농산물을 수입할 의향을 표명했기에 더욱 그렇다"고 덧붙였다.

- 베트남 정부는 보다 유연한 통화정책 시행의 여지를 마련하기 위해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종전 6.5~7%에서 최소 8%로, 인플레이션 통제목표도 4~4.5%에서 4.5~5%로 상향 조정한 상태다.
- 이에 대해 SC은행은 "강력한 성장 전망은 단기적으로 금리를 낮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베트남 중앙은행(SBV)이 인플레이션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2분기중 기준금리를 50bp 인상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 한편, 세계은행(WB)이 최근 발표한 외환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 중앙은행(SBV)은 동화에 대한 하방 압력을 줄이기 위해 외환보유액 매각과 공개시장운영(OMO)을 통한 시장 개입에 나섰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작년 12월 기준 동화는 달러 대비 4.4% 하락한 2만5,333동을 기록했다. 자국 통화를 평가절하하려는 압력으로 인해 환율은 SBV이 정한 기준점인  $\pm 5\%$  범위에 가까워졌다.
- 지난해 SBV이 매각한 외환보유액은 94억달러 상당에 달했으며, 이에 따라 2024년 3분기 기준 외환보유액은 국가 전체 수입액의 2.5개월치(IMF 권고치 3개월) 아래로 줄었다.

관련기사 링크: <https://www.insidevina.com/news/articleView.html?idxno=30267>

## ■ 롯데글로벌로지스, 동나이성 콜드체인물류센터 착공

- 롯데그룹의 물류계열사인 롯데글로벌로지스가 베트남 남부 동나이성(Dong Nai)에 대규모 물류센터 건설을 시작했다.
- 롯데글로벌로지스는 지난 19일 동나이성 연짜공단(Nhon Trach)에서 콜드체인 물류센터 착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공사에 돌입했다.

- 동나이성 물류센터 부지는 축구장 7.7배 크기인 5.5헥타르(5.5만㎡)로 이중 2.6헥타르에 걸쳐 냉장·일반보관을 겸한 창고시설이 들어선다. 기초공사는 지난달 시작됐으며, 내년 5월까지 전체 시설이 완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 롯데글로벌로지스 물류센터는 최첨단 냉장보관시설을 갖추고 있어 부패하기 쉬운 식품부터 고가 상품까지 다양한 상품을 보관할 수 있으며 ▲수출입 ▲보관 ▲운송 분야에 걸친 원스톱 물류서비스를 제공한다.
- 베트남 최대 경제도시인 호치민시와 인접한 동나이성은 주요 항만과 공항과 가까운 남부지방 물류거점으로 물류센터 완공시, 동나이성은 지역을 넘어 베트남의 선도적인 콜드체인 중심지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 특히 롯데글로벌로지스 물류센터는 베트남에 진출해 사업을 하고있는 우리 중소기업 지원에 큰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 앞서 롯데글로벌로지스는 지난해 5월 한국해양진흥공사와 전략적 협약을 체결하며 글로벌 물류경쟁력 제고, 특히 베트남내 수출입 활동에 참여하는 한국 기업에 혜택을 제공해왔으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코트라)와 협력을 통한 맞춤형 솔루션 제공으로 한국 기업의 물류상 애로사항 해소를 지원해왔다.
- 현재 롯데글로벌로지스는 베트남에 모두 5곳의 주요 물류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빈롱성(Vinh Long) 빈민공단(Binh Minh) 콜드체인 물류센터를 비롯해 추가적인 확장을 계획하고 있다.

## ■ 베트남...작년 음료시장 118조동(46.2억달러) 13% ↑

- 영국 시장조사업체 유로모니터와 베트남 시장조사업체 비락(VIRAC), F&B 솔루션업체 아이포스(iPOS) 등 3사가 공동조사해 최근 발표한 '2024년 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음료매장 매출은 118조2,620억동(46억3,190만여달러)으로 전년대비 13% 증가해 규모와 성장률 모두 지난 201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 업계에 따르면 이러한 음료시장 성장세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바쁜 하루를 살아가는 현대인의 라이프스타일이 되돌아오면서 커피숍과 밀크티 전문점, 바(Bar) 등의 장소가 음료를 즐기는 데 그치지 않고 지인과 만나거나 원격업무, 공부나 회의 장소로 인기를 끌고있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베트남의 커피문화 발전과 현대적인 소비트렌드, 중산층의 부상 또한 최근 음료산업의 회복과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 시장 면면을 살펴보면 음료서비스 산업은 이전과 달리 주로 대중적이고 저렴한 메뉴가 매출 성장세를 주도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 앞서 아이포스가 지난해 하노이와 호치민을 중심으로 전국 약 4,300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소비자가 선호하는 음료의 가격대가 중고가에서 중저가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가 뚜렷하게 관측됐다.
- 커피나 밀크티를 마실 경우 3만5,000~5만동(1.4~2달러)을 쓸 의향이 있다는 소비자는 2023년 47.7%에서 작년 31.5%로 급격한 감소세를 보인 반면, 2만1,000~3만5,000동(0.8~1.4달러) 가격대는 29.6%에서 40%로 크게 증가했다. 특히 2만동 미만 음료는 4.3%에서 12.3%로 3배 가까이 급증하는 등 저가음료에 대한 선호도가 확연히 늘어나는 모습이 관측됐다.

- 특히 2만1,000~3만5,000동대 저가 음료를 정기적으로 소비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40.6%에 달했고, 매일 음료를 소비한다는 응답자도 37.7%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 이와 대조적으로 고가로 분류되는 7만동(2.7달러) 이상 음료의 경우 2023년 7.3%에서 지난해 5.1%로 감소했다. 지난해 일부 프리미엄 음료 전문점이 이례적인 프로모션 공세에 나선 것도 이같은 영향 때문으로 풀이된다.
- 이에 대해 아이포스는 “전통적인 커피숍과 인기있는 밀크티 매장, 테이크어웨이 전문점 모두에서 소비자 선호도가 저렴하고 대중적인 가격대 음료로 옮겨가는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 지난해 베트남의 F&B시장 규모는 전년대비 17% 증가해 689조동(269억 8,570만여달러)에 달한 가운데 음료 전문점의 매출 비중이 전체의 17%를 차지했다. 매출은 상반기에 크게 늘었으며, 태풍 야기로 한차례 급격히 둔화된 매출 성장세는 11월 연말을 앞두고 되살아난 소비심리로 다시 회복세를 보였다. 이외에도 국제관광 성수기에 따른 외국인 관광객 증가와 음식배달시장이 크게 성장한 것이 성장세에 힘을 보탰다.
- 올해 전망과 관련, 아이포스는 전체 F&B산업 총매출이 전년대비 9.6% 늘어 755조4,000억동(약 295억8,640만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 지난해에 비해 둔화된 성장세는 ▲실업률 증가 ▲민간분야 임금 감소 추세 ▲정부조직 축소 개편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 부 탄 흥(Vu Thanh Hung) 아이포스 대표는 “소비심리 위축에 따라 비필수 지출이 줄어들 수 밖에 없으며 특히 외식과 같은 업종이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다만 매크로 환경의 전반적인 개선과 정책제도 및 기업환경의 점진적 안정화, 이에따른 소비심리 개선 등으로 하반기부터 F&B 시장이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 ■ GS25, 하노이 매장 6곳 개설...7년만에 북부로 확장

- GS리테일의 편의점 GS25가 하노이에 6개 매장을 동시개장, 베트남 진출 7년만에 북부지역 매장을 처음 개설하며 현지사업 확대에 나섰다.
- GS25는 올해 하노이를 거점으로 북부 지역에 40개 매장을 추가개장해 베트남 매장을 올해 500개, 오는 2027년까지 700개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베트남 1위 편의점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 GS25는 16일 하노이의 바딘(Ba Đình)•호안끼엠(Hoàn Kiếm)•동다(Đống Đa)•꺼우저이군(Cầu Giấy) 지역에서 6개 매장을 지난 14일 동시오픈했다고 밝혔다.
- GS25는 베트남 북부지역의 첫 진출에 대한 현지주목도와 브랜드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하노이 지역에서도 구매력이 높은 관광지, 오피스 상권에 매장을 우선 개장했다.
- GS25는 지난 2018년 1월 베트남 남부지역의 거점인 호치민에 첫 매장을 열어 베트남시장에 진출한후 현지 식문화와 K푸드를 결합한 차별화된 먹거리 전략과 식당•카페•쉘터 역할을 수행하며 빠르게 성장해왔다. 서클케이(미국), 패밀리마트(일본) 등 경쟁브랜드를 제치고 현재 남부지역에서 가장 많은 350여개 매장을 운영하는 대표 편의점으로 자리 잡았다.
- 특히 GS25는 동화약품의 약국체인 중선파마(TRUNG SON Pharma)와 협업으로 남부 메콩델타 띠엔장성(Tien Giang) 고공시(Gò Công)에 '편의점+약국' 스텝인숍(shop in shop) 형태의 컬래버레이션 1호점을 개설하고 향후 10개까지 늘리기로 하는 등 새로운 사업모델을 선보이며 베트남 사업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